



최영집 / 정회원, (주)중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eong-jib, KIRA

약력

- 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보훈처 심의위원

## 건축은 박물관의 골동품이 아니다

-서울 시청 본관 보존 논란에 대하여

Architecture is not an antique in a museum

지난 5월 10일 11시 드디어 서울시신청사 기공의 시삽을 시장과 함께 하면서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서울시청사 건축이었다. 용산으로 가느니 뚝섬으로 가느니 갈팡질팡한 것이 몇 년이었으며 현재 위치에 건립 방침을 정하고 나서도 설계경기를 몇 번이나 다시 하였던가. 덕수궁을 고려한 층수문제로 구관의 보존여부 문제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끝에 겨우겨우 구관 보존을 전제로 새로운 설계안을 선정하여 착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고 끝에 약수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위한 신중한 과정이었기를 바라며 테이블을 끊고 축하의 박수를 힘차게 보냈었다. 그러나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청과 문화재청간의 의견 대립으로 일이 꼬이고 얽혀가는 것 같다.

서울의 3대 근대건축물을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중앙청사, 서울시청사, 서울역사가 있겠는데 건립주체와 경위가 어땠든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로 인해 문화재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건축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건축적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중앙청이 식민지 시대 사용기간보다 해방 후 사용기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미처 논란의 장에 오르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해도 민족 애환의 상징이었던, 우리나라에 그나마 존재하던 잘생기고 귀한 근대 건축이 흔적도 없어진 것이다.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무얼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구 서울역사는 그나마 보존되고 있고 문화시설로 다시 탄생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서울시청 본관은 문화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볼 때 그 두 건물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는지 사적지정도 안된 수준이었지만 2002년 월드컵 이후 서울광장과 함께 지워질 수 없는 서울의 이미지로 전 세계에 자리 잡았다. 이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건축적 아이콘이 되어 버린 것이다. 태생이 어찌되었던 역사와 함께 민중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였던 의미 있는 건축이라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21세기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20세기 구청사를 보존하여 연계시키고자 하는 개념은 건축의 수명을 연장시켜서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문화시대의 문화적 가치이다.

그러나 건축은 박물관 진열장에 있는 골동품이 아니다. 원형을 유지하되 시대발전 상황에 맞추어 인간의 생활을 담아야 살아있는 건축이 된다. 보존한다고 하여 사람이 사라진 박제된 건축은 문화재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건축은 아니다.

기존 본관은 이미 여러 차례 구조나 재료의 보수가 있어왔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재의 교체와 구조안전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문화재 훼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청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총괄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처럼 구 대법원 청사의 표피만 보존시키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구관을 기능적으로는 시민도서관으로 활용하며 상징적으로는 신관의 정면으로 활용해야 하는 복합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관 중앙후면에 있는 태평홀이 문제가 되었나보다. 태평홀은 서울시청의 일반적 건축이미지로 부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

서울시 구관 보존 문제와 태평홀 보존 문제를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함께 붙어있다 해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떼어서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존을 위한 보존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건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재관리 방향은 아닐 것이다.  
유럽의 근대 건축들이 보존되면서도 어떻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문화재 개발에 좀 더 신축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후면에 자리 잡고 있던 서울시 주요 회의가 열리던 공간이었는데 아르누보적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스케일로 인해 건축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던 사랑받는 실내 건축이었다. 건축·도시 심의위원을 하는 동안 태평홀에서의 회의는 건축으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고상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태평홀은 어디까지나 실내건축 공간의 하나일 뿐이지 그 자리에 꼭 보존하고 지켜야 할 장소적 가치와 외형적 건축 이미지는 아니었다. 구조적 안전도 때문에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 입장과 사적으로 가지정을 하면서까지 원형보존을 고수하는 문화재청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구관 하나만 보지 말고 신구조화를 통해 새롭게 창조시키고자 하는 전체시청사의 종합 계획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지하 5층이나 파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구관을 계획적으로 볼 때 중앙홀에서 양 날개가 있고 중앙후면에 종합 회의공간인 태평홀이 매듭짓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는 그 역할을 크게 확장된 신관이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그렇게 종합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이다. 제자리에 원형 보존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행히 태평홀의 실내건축은 신관에 이전 복원된다고 하니 역사의 발전에 따라 새 계획 속에 어떻게 다시 탄생되는지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현 위치에서는 철거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신청사 속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기대해 보는 것도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의 창작의지를 격려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반드시 보존시켜야 할 구관의 건축적 가치와 이미지 속에서 태평홀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오히려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건축을 열어줄 수 있는 계획적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일부 태평홀 원형보존의 열정은 이해하나 구조안전 여부를 떠나서라도 더 큰 건축적 성취를 위해 태평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태평홀은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는다.

태평홀의 진심을 외면한 채 부처의 고집과 오기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 미명하에 건축을 박제시켜버리는 편협한 일이 될 것이다.

구관을 보존하더라도 신관과 함께 유기적이고 발전적으로 건축에 생명을 주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며 신관 증축과 상관없이 마지못해 보존하는 시체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한다. 태평홀 철거여부는 아주 작은 문제일 뿐이다. 구조나 계획상 부득이 철거하고 신관 속에 복원해야 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전체 계획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시 구관 보존 문제와 태평홀 보존 문제를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함께 붙어있다 해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떼어서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존을 위한 보존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건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재관리 방향은 아닐 것이다. 유럽의 근대 건축들이 보존되면서도 어떻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문화재 개발에 좀 더 신축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